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 2시간]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4.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5.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제 시 문 □

[가] 인간의 본성적 능력과 주어진 조건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키가 큰 반면 어떤 이들은 작다. 또 어떤 이들은 현명한 반면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 출신 성분이나 교육을 통해 어떤 이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힘이나 지혜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속한 집단이 생각하는 방식만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곤 한다. 예컨대 어떤 집단은 동성애가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동성애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집단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와 활동의 권한을 주길 바라는 반면, 다른 집단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남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인간 본성을 분명하게 한정 지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어떤 집단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할 수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은 정치 논의에서 인간 본성을 배제시키기도 했다.

다행히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적절한 수준에서 한정 지어 줄 만한 기준이 하나 있다. 모든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 인간의 본성을 사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본성의 문제가 아니다. 본성은 결코 자기 자신과 다투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문화가 자신의 문화보다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은 본성상 언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여 유지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며 정의를 추구한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 갖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공통의 가능성, 즉 태어난 문화권 안에서 번영하고 그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곧 인간의 본성이다. 이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깨달을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도, 혹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건전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성적이다.

[나] 그러니 불평을 말아라. 바보들은 오로지
위대한 별집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애를 쓴다만
세상의 편리함을 누리며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면서도 넉넉하게 사는 것이
커다란 악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머릿속에나 들어 있는 헛된 꿈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사기와 사치와 오만은

그 이득을 우리가 누리는 한 남아 있을 것이다.

배고픔은 끔찍한 재앙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없다면 누가 밥을 삭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포도주를 얻는 것은

초라하게 말라 꼬부라진 포도 넝쿨 덕이 아니던가.

덩굴은 새싹을 내버려 둔 채

다른 나무를 목 조르며 숲으로 달려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고귀한 열매로 축복해 주는 것은

바로 덩굴이 묶이고 잘리고 나서이다.

(…)

나라에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위대해지고자 해도

사람이 배고파야 먹게 되듯이

순진한 미덕만으로는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없다.

황금시대를 되살리려면

사람은 자유로워야 하니

도토리에 대해서나 정직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다.

[다] 함경남도에 있어서의 가장 긴급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일 것이니 특히 어느 한 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 문제라든가 연안축항 문제라든가 함중선 부설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얼마든지 지금 당면 문제로 걸려 있어 그 긴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시각을 좀 달리하여 교육 문제와 관련되는 일반 농촌 대중에 문자 보급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 번 역설하여 보다 완전한 시절이 급속히 실현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함경남도는 본래 문화가 떠러진 지방이었으나 시대가 밝어지면서부터 구시대의 반동으로 향학열이 어느 지방보다 치열하였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함남 각지 농촌에는 거진 빠짐이 없이 크나 적으나 촌촌 야학이 있었다. 그 자세한 수짜를 얻기는 어려우나 웬만한 촌에는 으레히 야학이 있어서 다소 식자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왔다. 수짜로 보아서 학교 교육에 비할 것은 아니겠으나 영원히 문자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들에게 남과 같이 배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면 그 아무 데에다가도 비길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탓인지 시대의 탓인지는 차치물론하고 그러한 문자 보급 기관의 대부분이 오늘날 자취를 감춘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다. 없어지게 된 데에는 물론 그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어쨌던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바이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국은 속히 보편적 방침을 세워 가지고 문맹타파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함남도 통계를 보면 도내 서당 수가 오백육십 개소이며 강습소가 구십삼 개소이고 거기서 수강한 인원이 삼만 명이라 한다. 일견 그 수짜는 상당히 큰 것 같으나 함남도 백오십만 인구를 고려에 느을 것 같으면 아직도 그 수는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화를 동경하는 식자의 욕심으로 말하면 가정부인이고 늙은 농부고 머슴이고 비복이고를 막론하고 죄다 글자 배울 기회와 기관을 가지게 하고 싶다. 과거 도내에 야학이 성행하던 때에는 보통 학교로 갈 수 없는 남녀 아동이 혼연히 모다 책을 끼고 야학으로 모여 왔었다. 대부분의 야학, 서당, 강습소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므로 이제부터는 당국이 출선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그 전보다 오히려 나은 기관을 만드려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서적이 나가는 수로 보아도 함남도가 특히 다른 지방보다 문자에 대한 열망이 왕성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여계 적당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급시킨다면 다른 곳보다도 효과가 클 것이다.

산업 문제 같은 것은 생활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중요시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어떠한지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사실이나 문자에 관한 문제는 당국이나 식자들이 적절한 방침을 세우지 안코는 그 자체로서 해결될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모든 기회에 있어서 거듭거듭 부르짖지 안하면 안될 긴급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 내 생각에 우리는 그간 너무도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난 문제가 있으니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돼’, ‘난 문제가 있으니 이것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받아야만 해’, ‘난 집이 없으니 정부가 집을 제공해야 마땅해’.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회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개인으로서의 남성과 여성과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첫째로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돌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삶은 상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무는 없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먼저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주는 수당은 그들이 아플 때 안전망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좋아, 우리는 힘을 모아서 보험을 갖춘 거야.’ 이게 수당의 목적인데, 세상에는 이 시스템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과 수당이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이 일자리가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 수단을 제공받게 될 거야’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는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그만큼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그건 실업수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이웃이 제공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살 수 있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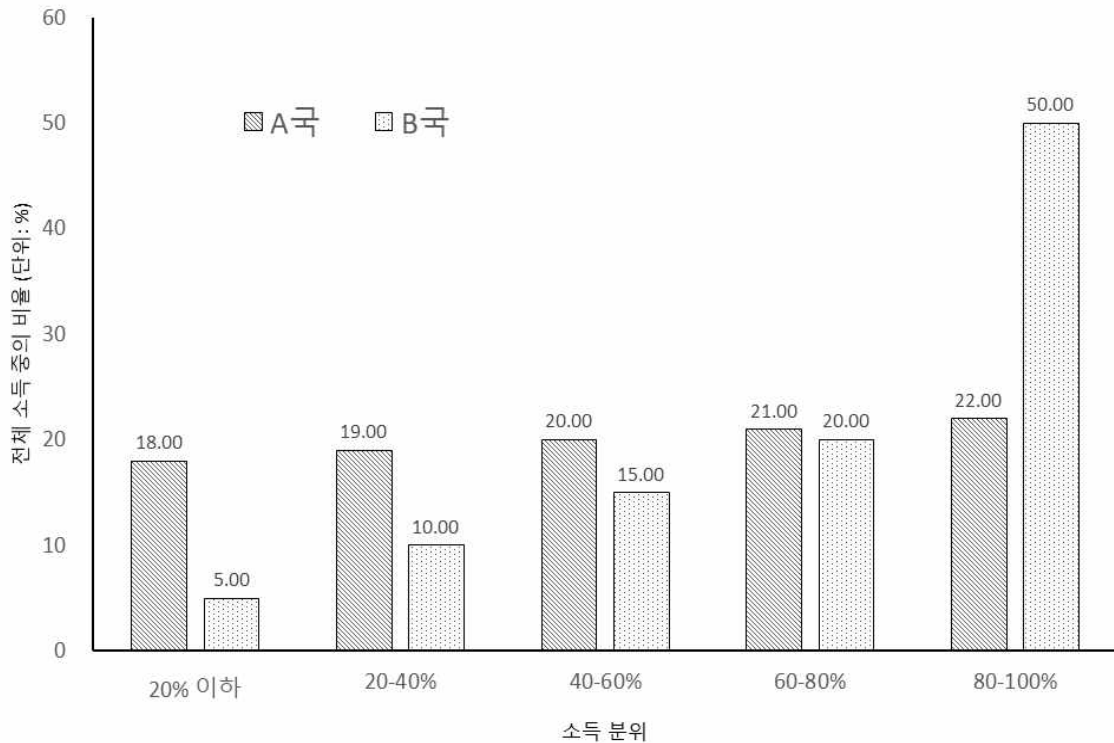
□ 문 제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다음은 A국과 B국의 각 분위별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가로축은 각국의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인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배열한다고 할 때 각각 20% 이하, 20-40%, 40-60%, 60-80%, 80-100%의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별로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세로축은 각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18%를 벌어들인 반면 B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5%를 획득하였다.



한편 다음의 표는 A국과 B국의 성인 인구, 자본재의 규모 및 국민소득을 나타낸다. 두 나라에서는 동일한 한 가지의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재가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자본재의 규모는 기계의 대수를 나타내고 국민소득은 생산물 시장가치의 합과 같다. 양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과 노동자의 숙련도 및 자본재의 품질, 그리고 물가 수준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국	B국
20-65세 인구 (단위: 명)	1,000	200
자본재의 규모 (단위: 대)	2,000	400
국민소득 (단위: 억 원)	1,000	1,000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추론하라.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1,000자 내외, 배점 50점)

————— <보기> —————

사람들 누구나 무더위를 괴로워하지만 / 나는 긴 여름 해를 좋아하네.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 전각엔 시원한 기운 일어나네.
일단 이런 곳으로 거쳐 읊기면 / 괴로움과 즐거움 영영 잊고 마니,
원컨대 이런 베풀 고르게 하여 / 시원한 그늘 사방이 누렸으면.